

한류 타고 뜬 ‘K-굿즈’… 中企 140여곳 북중미 수출길 연다

〈뷰티·푸드 등〉

美 ‘ASD Market Week’

중기중앙회, ‘K-Goods Fair’ 개막
소비재 관련 미주 시장 동향 파악
현지 바이어, 한국 제품 기대 높아

K-뷰티, K-푸드 등을 제조·판매하는 140여개 한국 중소기업들이 미국 시장 공략에 본격 나섰다.

중소기업중앙회는 25일(현지시간)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린 ‘ASD Market Week 2026’에서 ‘K-Goods Fair’ 개막식을 개최했다고 26일 밝혔다.

K-Goods Fair에 설치한 150여개 부스에는 중소벤처기업부 수출컨소시엄사업 참여기업들 비롯해 중기중앙회 노란우산공제 소상공인, 휴앤쇼핑 협력사들과 함께 서울, 경기, 경북, 충북 등 지역 소재 중소기업들이 참여했다.

‘ASD Market Week’는 1961년 시작해 60년 이상의 전통을 가진 북미 지역의 대표 소비재 B2B 전시회로, 매년 상·하반기에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린다. 특히 소비재와 관련해 미주 시장의 모든 분야에 대한 동향과 최신 트렌드 파악이 가능한



지난 25일(현지시간)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린 ‘ASD Market Week 2026’에서 한국과 미국 관계자들이 ‘K-Goods Fair’ 개막식을 진행하고 있다. /중기중앙회

전시회로 손꼽힌다. 이번 전시회는 25~27일 사흘간 펼쳐진다.

전시회에 참석한 현지 바이어들은 한국 제품에 대한 기대가 매우 높은 모습이다. 미국 유통체인 빌드 디파트먼트의 디렉터인 앤젤은 “드라마, K-Pop 등 한국 콘텐츠에 관심이 높아지면서 한국 제품을 찾는 수요도 많아지고 있다”며 “이번 대규모 한국관을 통해 다양한 제품을 한자리에서 볼 수 있어 좋았으며 사흘의 전시기

간 동안 지켜보며 여러 제품에 대한 상담을 진행할 것”이라고 전했다.

브라질에서는 뷰티프로의 바이어미겔은 “시존 상품을 소싱하기 위해 꾸준히 이 전시회를 찾고 있다”며 “평소 눈여겨보던 한국 제품을 현장에서 직접 체험해보니 기대 이상으로 훨씬 매력적이다. 디자인과 품질이 우수한 K-뷰티 제품에 관심이 있고 차별화된 기능을 앞세워 중남미 시장에서도 해볼 만한 것 같아 샘플을 요청

했다”고 말했다.

한국관에 재참가한 서현영 스킨앰플러스 대표는 “지난 3월 처음 참가한 ASD 전시회에서 중남미 바이어와 250만 달러 규모의 독점 계약을 체결할 수 있었다”며 “두번째 참가를 계기로 월마트, 코스트코 등 북미 대형 유통망과도 성공적으로 계약을 체결해 진출 기회를 확대하고 싶다”고 전했다.

중소기업 글로벌 홍보대사로 이번 행사

에 동행한 박영선 전 장관은 자신의 SNS에 한국 기업들을 응원하는 글을 올리기도 했다.

박 전 장관은 “ASD Market Week가 올해 주목하는 나라는 KOREA”라며 “한류와 함께하는 한국 제품들은 특히 화장품을 비롯해 악세서리 등 아이디어 상품들의 인기가 많다. K-뷰티는 현장체험관을 마련해 눈길을 끌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아침부터 한국관을 찾는 사람들의 발길이 이어지며 북적북적했다. 외국인들의 관심이 K-goods에 쏠려 있다는 데 어께가 으쓱해졌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김기문 회장은 “최근 통상환경 불확실성이 심화되는 상황에서도 K-뷰티와 푸드는 큰 인기를 끌고 있으며, ASD 전시회 주최 측에서 한국 기업의 참가를 요청할 만큼 그 위상이 높아졌다”며 “저출산·고령화 시대에 중소기업의 해외 진출은 이제 필수로, 이번 ‘K-Goods Fair’가 우리 중소기업들이 북중미 시장에서 새로운 돌파구를 여는 실질적인 수출 플랫폼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승호 기자

bada@metroseoul.co.kr



metro



권형택 기보 이사장(왼쪽에서 두번째)이 지난 25일 서울 중구 우리은행 본점에서 정진완 우리의행장(왼쪽에서 세번째) 등과 업무협약을 맺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기보

기보-우리銀, 미래 전략산업 육성 ‘맞손’

반도체·피지컬·AI·데이터센터 기업에
총 9750억 규모 협약보증 공급 예정

기술보증기금이 우리은행과 미래 전략산업 육성을 위해 손을 잡았다.

기보는 우리은행과 지난 25일 서울 중구 우리은행 본점에서 케이·스파크(K-SPARK) 대한민국 대도약 생산적 금융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6일 밝혔다.

협약에 따라 기보는 우리은행의 특별출연금과 보증료지원금을 재원으로 총 9750억원 규모의 협약보증을 공급할 예정이다.

기보는 협약보증을 통해 대상기업에 ▲

보증비율 상향(85%→100%, 3년간) ▲보증료 감면(최대 0.5%p ↓, 3년간) 등의 우대 혜택을 제공하고, 우리은행은 보증료(1%p, 2년간)를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기보의 기술보증 요건을 충족하는 신기술사업자 중 ▲반도체 ▲피지컬 AI ▲AI 데이터센터 등 대한민국 대도약 3대 메가프로젝트 관련 전략산업을 영위하는 기업이다.

양 기관은 이번 협약을 계기로 첨단산업 분야의 유망 기술기업을 적극 발굴하고, 이들 기업에 생산적 금융이 원활히 공급될 수 있도록 협력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김승호 기자

삼성디스플레이, 차량용 OLED 영토 확장

제네시스 ‘GV90’에 2종 공급
차량 중앙에 움직이는 화면 적용
페라리 ‘루체’에도 단독 공급

삼성디스플레이가 제네시스의 초대형 플래그십 전동화 스포츠유틸리티차(SUV) ‘GV90’에 유기발광다이오드(OLED)를 공급한다. 마니와 페라리에 이어 제네시스까지 프리미엄 완성차 고객을 넓히면서 차량용 OLED 시장 선두 굳히기에 나섰다.

26일 삼성디스플레이에 따르면 회사는 GV90에 24.6형과 13.2형 OLED 2종을 공급하며 이달부터 본격 출하에 들어갔다. 특히 차량 중앙에는 화면이 위아래로 움직이는 24.6형 OLED가 적용됐다.

주행 중에는 23.6형 화면으로 주행 정보와 내비게이션 등을 보여주지만 정차 후 버튼을 누르면 화면이 90mm 위로 올라간다. 화면 면적도 약 1.7배로 넓어진다. 얇고 가벼운 OLED의 특성을 활용해 차량 내부에서 디스플레이 자체가 움직이도록 만든 것이다.

삼성디스플레이가 차량용 OLED에서 공들이는 지점은 이 같은 디자인 차별화



삼성디스플레이의 24.6형 OLED가 탑재된 GV90 네오론의 팝업형 센터 OLED 시네마틱 디스플레이. /현대차그룹

다. 스마트폰처럼 정해진 직사각형 화면을 공급하는 데 그치지 않고 완성차 업체의 실내 디자인에 맞춰 제품 형태를 바꾸는 방식이다.

공급사례도 빠르게 늘고 있다. 미니 전 기차에는 업계 최초로 대형 원형 OLED를 공급했다. 지난 5월 공개된 페라리의 전기차 ‘루체’에는 OLED 4종을 단독 공급했다. 특히 운전석 계기판에는 두 개의 OLED 화면 사이에 실제 바늘을 배치해 디지털 화면과 기존 기계식 계기판을 결합했다.

이번 GV90에서는 한 단계 더 나아가

화면 자체가 움직이는 구조를 적용했다. 미니의 원형 화면과 페라리의 겹치는 계기판에 이어 팝업형 디스플레이까지 확보하면서 삼성디스플레이의 차량용 OLED 제품군도 다양해지고 있다.

차량용 OLED 시장은 아직 전체 자동차 디스플레이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작지만 고급차를 중심으로 성장하고 있다. 시장조사업체 옴디아에 따르면 지난해 글로벌 차량용 OLED 패널 출하량은 약 305만 대로 전년보다 11.8% 증가했다. 이 가운데 삼성디스플레이의 점유율은 70%를 웃돈 것으로 추정됐다. /구남영 기자 koogija_tea@

한샘-한화손보, 고객 가구수리 부담 완화

‘한샘AS케어+’ 도입 맞손

한샘이 고객의 가구 수리 부담을 덜고 품질 보증을 강화하기 위해 한화손보와 손을 잡았다.

한샘은 한화손보와 가구업계 최초의 가구 연장보증보험(EW보험) ‘한샘AS케어+(플러스)’ 도입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지난 25일 체결했다고 26일 밝혔다.

한샘AS케어+는 1년간의 무상 보증기간이 종료된 이후에도 고객이 안심하고 가구를 사용할 수 있도록 3년 더 보증기간

을 연장해주는 보험 상품이다.

고객은 구매 시 원하는 제품을 선택해 보험에 가입할 수 있으며 1회만 결제하면 된다. 고장의 경우 횟수 제한 없이 제품가액 한도 내에서 수리 금액 전액을 보장하며, 고객 과실로 인한 파손이 발생하더라도 1회 보장받을 수 있다.

한샘과 한화손보는 한샘AS케어+를 도입하면 가구 구매 후 발생할 수 있는 수리비용에 대한 고객 부담을 줄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승호 기자

LS일렉트릭-GE버노바, HVDC 합작법인 설립

‘Grid X Technology’로 국내외 공략

LS일렉트릭이 글로벌 전력 인프라 기업 GE버노바(GE Vernova)와 전압형(VSC) 초고압직류송전(HVDC)합작법인을 설립하고 정부가 추진하는 ‘서해안 에너지 고속도로’ 사업을 비롯한 국내외 전력망 시장 공략에 나선다.

LS일렉트릭은 지난 25일(현지시간)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세계 최대 전력망 기술 전시회 ‘CIGRE 2026’에서 GE버노바

와 합작법인(JV) 설립을 위한 전략적 협력 계약을 체결했다고 26일 밝혔다.

합작법인의 사명은 전력망의 신뢰성(Reliability)과 통합(Integration), 교환(eXchange)의 의미를 담은 ‘Grid X Technology’로 정했다. 양사는 합작법인을 통해 국내 전압형 HVDC 사업에 필요한 핵심 기자재를 공급하고 프로젝트를 공동으로 수행할 계획이다. 각사가 보유한 기술과 생산·사업 역량을 결합한 솔루션을 개발하고 글로벌 HVDC 시장 진출을 위한

협력체계도 구축한다.

이번 협력은 정부가 추진하는 ‘서해안 에너지 고속도로’ 사업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다. 서해안 에너지 고속도로는 호남과 서해안 일대에서 생산한 대규모 재생에너지를 수도권으로 안정적으로 송전하기 위한 국책사업이다.

LS일렉트릭은 국내에서 유일하게 상업용 HVDC 프로젝트에 핵심 기자재를 공급한 경험을 보유하고 있다. /원관희 기자 wkh@